

중국적 삶의 진실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국소설

존 허시 지음 「양자강의 푸른 눈」

「양자강의 푸른 눈」은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크선에 승선한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관찰한 중국인들의 삶을 응축한 소설이다.

미국인 엔지니어는 중국의 거대한 물줄기인 양자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회사의 계획에 따라 양자강을 사전 탐사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양자강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한 정크선에 승선한다. 우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찰자인 미국인 엔지니어가 소설이 끝나는 순간까지 관심을 갖는 인물은 네 사람이다. 정크선의 주인인 선주와 그의 아내 '수링' 그리고 정크선의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실제로 정크선을 움직이는 선장, 마지막으로 교활하기 그지없는 요리사가 전부이다.

이 소설의 중심 테마는 중국인의 삶이지만 사건을 이끌어 가는 요소는 '수링'을 둘러싼 남자들의 '사랑'이다. 외국인으로서 혼자 승선한 엔지니어는 소설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수링이라는 여자에게 매혹당한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선주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가가는 어렵다. 그 배의 선장 또한 수링에 대한 연모의 정을 꿰고 있다. 단지 중국인 특유의 배포와 우직함으로 그 감정을 감싸고 있을 뿐이다. 이상한 것은, 선주가 아내인 수링을 "자기의 소유물인 양" 수직관계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녀를 사랑하는 선장과 미국인 엔지니어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선주야말로 중국인이 갖고있는 '의심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 사람이다.

요리사를 제외한 세 남자가 수링을 사이에 두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때나, 당사자인 수링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의 동요없이 지낼 때는 정크선이 예정된 선로를 가고 있을 때이다. 정크선이 암초에 걸리거나 침몰 위험이 있을 때는 선원들 모두가 동원돼 당기슭에서 밧줄을 잡아당겨 뱃길을 바로 잡는다. 이 때는 선장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며 내심 선장을 좋아하는 수링은 그를 자랑스러워 한다. 여기서 엔지니어는 선장에게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 보다 도르래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 웅이가 박힌 자신의 손을 모욕했다고 여겼는지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계마저 빼앗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수링과 선장은 양자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엔지니어의 뜻에 더욱 반대한다. 그 반대는 중국인의 삶과도 직결되는데, 그들의 부모와 이전의 사람들이

정크선을 만들었고 끊임없이 양자강에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도 계속해서 할 어떤 사명감이다. 이 소설의 전환점은 도르래의 사용을 경멸하던 선장이 강에 빠지면서 부터이다. 밧줄을 온몸에 감고서 잡아당기던 선장이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다. 선주는 선원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선장을 구하려 간다. 그러나, 양자강을 다 거슬러가도록 선장과 선주는 나타나지 않는다. 양자강 탐사를 끝낸 엔지니어가 선원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그들은 말한다. "선장은 죽었고 선주는 살았을 거다"라고. 그 이유는 '배'에 있다. 선주는 배를 타고 갔지만, 선장은 맨몸으로 빠졌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링과 선원들은 선장 때문에 슬픔에 잠긴다.

"양자강에서 배에 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미신은 사실로 나타나, 선주는 살아오고 선장은 행방을 알 수 없다. 이쯤에서 소설은 결말을 향한다. 화자인 미국인 엔지니어의 관찰도 끝난다. 소설 전반에 걸쳐 양자강에 삶의 뿌리를 둔 중국인들은 줄곧 미신을 숭배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주로 '배'에 관련된 미신으로, "배 안에서 생선요리를 뒤집어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는 미신도 이들을 지배하고 있어 선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 이는 양자강 때문에 살아가는 정크선의 선원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갖고있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다. 엔지니어는 소설 전반에 걸쳐 이런 의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서 서술해 지루한 감도 있지만 중국인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배남옥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258-10 산성유치원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시와시화사에서 나온 시인 복효근의 시집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라는 시집은 오랜만에 나를 서정성의 마당에 데려다 주기에 충분했다. 이 시집은 도시에서 결코 맞볼 수 없는 산나물의 맛을 느끼게 한다. 시인의 존재근거가 도시가 아닌 농촌에 자리잡고 있음을 엿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준다.

구호이거나 추상적인 언어의 나열이거나 관념의 경박성에 치우친 시가 난무하는 현실이

기에 꾸준히 서정성을 틀어 쥐고 있는 복효근 시인의 시는 높은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도시를 공간으로 한정하고 씌어진 시, 예들들어 최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최영미 시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처럼 끊임없이 욕망의 분출구를 찾아헤매며, 그에 이르지 못한 허무에 자신이 몽그러지는 류의 시집에 비해 복효근시인의 상상력이 더욱 건강하기에 그의 시는 '맛이 있다.'

나는 복효근 시인에게서 허무에 빠지지 않으려는 작가정신을 읽는다. 그는 '대중탕에서'라는 연작을 시집에 발표하고 있는데, 대중탕이라는 장소의 나체는 그의 정신이 맑고 깨끗함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한다.

"대중탕에 들어서면 운명처럼/번호표 달린 열쇠를 받는다/죄인이라는 거다/관을 닦은 옷장을 열면/물음표 같은 옷걸이 하나/살아온 날을 묻는다/확인하자 벗으라 한다/양말도 벗고 겹옷을 벗고/속옷을 벗고 남김없이 벗고나면/입은 만큼 껌질로 쌓이는 시간/거울 속/수인번호를 발목에 차고/추레한 사내 하나/벗어야 할 껌질로 서 있다"('수인번호를 발목에 차고' 전문)

'죄인'이기에 옷을 벗어야 하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다시 "벗어야 할 껌질로" 된 자신을 발견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는 시인의 눈은 들이나 산에 흔하게 널려 피어나는 산꽃이나 들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집 발문을 쓴 김재홍 교수가 복효근 시인에게서 식물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어릴 적/마른벼슬 피듯이 출기차게 피어 나는"('민들레는 먹을 수 있는 풀'에서) 그의 상상력은 한 밤에 물 떨어지는 소리 같아 더욱 크게 들린다.

강석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7-7 우드토피 구리점

최인훈 지음 「화두」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해체로 특징지워지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의 세계사적 격변은, 이성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많은 지식인들을 당혹케 했고 그들을 침묵 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었다. '역사의 종언'이 운위되고 이성의 확실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90년대 초반의 문단은 이런 분위기에서 전혀 새로움이 양산되지 못했다. 고작 80년대를 음울하게 추억하고 살짝 칭찬하려는 회고조의 작품이 많이 발표됐을 뿐이다. 그 추억은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단절의 두려움만이 짙게 깔린 회고였다. 이 시점에서 탁류같은 세계사적 흐름과 한반도 민중이 당면한 현실의 과제에 과감히 맞서는, 그리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를 정직하게 짚어주는 것으로 읽기에 충분한 소설이 출간됐다. 바로 최인훈의 「화두」(민음사)이다.

「화두」의 소설적 방법이자 목표는 작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억의 밀집 속에서 옳은 맥락을 찾아내어 그 맥락이 기억들 사이에 옳은 연대를 만들어 내게 함으로써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기억의 맥락에서 작가는 두 개의 화두에 의해 이끌린다. 하나는 중학교 교실 벽보에 쓴 글이 빌미가 되어 지도원 선생에게 자아비판을 강요당하는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작문시간에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에 대한 독후감이 그 자체로 작품이라는 칭찬과 함께 장차 훌륭한 소설가가 되리라는 국어선생님의 예견을 들었던 영광의 기억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개인에 대한 억압이 유년시대의 추억인 전자는,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의 정당성 여부와 자기 개인의 도덕적 정당성 사이의 간단없는 긴장관계를 형성시킨다. 지도원 선생은 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면모로써 기억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도원 선생에게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깃발을 들게 했던 지도자들, 마르크스, 레닌을 기억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험은 「낙동강」을 매개로 하여 문학적 열락을 맛보고, 그 추억이 그로 하여금 평생의 독서와 글쓰기로 끌고 간다. 현실의 권력과 이념과의 부단한 대응관계를 의식하면서 그의 생애 '화두'로 작용한다. 「화두」에서 이끌어내는 작가의 기억은 한반도 주위를 둘러싼 세계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그의 시야와 감각은 우리 삶을 고귀한 것으로 승화시킨다.

최해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495